

유아학비 지원 대상 4세까지 확대

전북교육청, 유보통합 앞두고 유아교육·보육기관의 교육·돌봄 여건 개선 위해... 어린이집까지 해당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기존 5세를 대상으로 지원했던 유아학비를 올해는 4세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유보통합을 앞두고 유아교육·보육기관의 교육 및 돌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공·사립 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까지 모두 해당된다. 추가 지원비는 유아 1인당 5만원이다. 내년에는 3~5세 전 연령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보육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보 교육비 부담도 경감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도 계속된다.

올해는 유아 1인당 16만5,000원을 지원해 공·사립 차별없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유아 교육비 확대 지원에 따른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회계지도 컨설팅단을 구축해 연 2회 이상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유아학비 추가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책임교육·보육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1~13일 군산청소년자치배움터와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 제3기 전북학생의회 예비학생의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북학생의회 예비학생의원 역량 강화

군산청소년수련관서 워크숍... 성증적인 의정활동 추진 다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11~13일 군산청소년자치배움터와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 제3기 전북학생의회 예비학생의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3기를 맞은 전북학생의회는 지난 1월 공개추첨 의원 10명과 14개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의원 40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1년이다.

이번 워크숍은 예비학생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한 기초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성과 민주성에 기반한 참여적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비 전북학생의원 50명을 비롯해 업무담당자, 협력교사 등 60명이 참가. 2025년 제3기 전북학생의회의 성공적인 의정활동 추진을 다짐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2025년 전북교육청 주요정책 이해 △전북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안내 △2023~24년 전북학생의회 의정활동 △학생의원 인성 및 소양 교육 △정책제안서 작성

및 모의 정기회의 실습 등이다.

배세률(용소중) 학생은 “예비 전북학생의원 역량 강화 워크숍에 참여한 후, 학생의원으로 활동했던 날들이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강준(전라도) 학생은 “전북학생의원 의원으로서 평소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정은 “전북의 약 20만 학생을 대표하는 전북학생의원 당선을 축하한다”며 “전북학생의회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객실 직수정수기 도입... ESG 가치 실천 기여

전북교육청 교직원수련원, 본관 33개 전 객실에 설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원장 남궁옥)은 ESG 가치 실천을 목적으로 본관 전 객실(33실)에 직수정수기를 설치하고 생수병은 비치하지 않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의 시행에 따라 일회용 삼푸나 차약, 칫솔 등 숙박기관에서의 일회용품 제공은 금지됐지만, 플라스틱 생수병은 해당되지 않았다.

이에 교직원수련원은 플라스틱 생수

병 또한 다른 일회용품과 마찬가지로 폐기물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고민 끝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수정수기 도입을 결정했다.

남궁옥 원장은 “우리 교직원수련원을 방문하는 교육가족에게 플라스틱 생수병 대신 깨끗하고 신선한 물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변산 바다도 보호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202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생 75명 배출

전주대학교 사범대학은 202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75명의 합격생을 배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전국 평균 경쟁률이 6.9:1이었다.

전주대는 사범대학의 체계적인 대학 자체 집중 특강 및 맞춤형 임용고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험생들의 실전 감각과 심층 면접 능력을 높여 왔다.

사범대학 윤마병 학장은 “이번 성과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 임용고시 대비 사제동행 특강 덕분이었다”며 “매년 임용고시 합격률을 35%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학교 현장 중심의 교육과 미래 역량을 가르려는 노력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에서 최우수(A등급) 표창을 받은 바 있는 전주대학교 사범대학은 학교현장실습 학기제 사업을 2024년부터 2년 연속 시행하면서 미래소양과 학교 현장 능력을 배양한 예비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청강문화산업대서 VR 활용 콘텐츠 성과 벤치마킹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 12일 청강문화산업대학교를 방문해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신기술을 적용한 이차전지 제조·조립 공정 분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VR(AR)활용 교육 콘텐츠 운영성과를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이번 벤치마킹에서는 전주비전대학교 박효식 신산업선도전문대학사업단 사업단장, 신재생에너지학과 김혜미 학과장 외 신산업운영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이차전지 제조·조립 공정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VR(AR), AI 기반 활용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노하우 파악,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사업현황 교류 등 청강문화산업대학의 운영성과와 우수사례 창출을 위한 대학의 노력을 경청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경영학부가 호·영남 최초 한국경영교육인증원(KABEA)으로부터 4주기 통합인증 심사결과 '5년 인증'을 획득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경영학교육 '5년 인증' 획득

전북대 경영학과, 호·영남 지역 최초로 한국경영교육인증원으로부터 심사 결과

전북대학교 경영학부가 호·영남 최초 한국경영교육인증원(KABEA)으로부터 4주기 통합인증 심사결과 '5년 인증'을 획득했다.

경영학교육인증제는 경영학 교육 과정에 대한 인증을 통해 경영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기업·사회·국가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의 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인증제도다. 한국경영교육인증원에서 경영학 교육 여건과 향후 교육개선 계획에 대해 현장실사 및 인증위원회 심의 및 운영위원회 의결 과정을 거쳐 인증등급을 부여한다.

13일 전북대 경영학과에 따르면 올해 4주기 통합심사에서 학부, 일반대학원 및 경영대학원 모두 인증(5년인증), '인증 가, 나(2년인증)' 또는 '인증 보류'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한 이후 2029년 8월까지 20년 연속 최초 한국경영교육인증원(KABEA)으로부터 4주기 통합인증 심사결과 '5년 인증'을 획득했다.

한규식 경영학과장은 “전북대 경영학과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경영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경영교육으로, 학과의 교육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면서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춘 경영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경영교육인증원은 전국 경영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미션, 비전 및 목표, 교육과정 및 학습성과관리, 학문연구 및 사회제영향 등 9개 영역을 평가 기준으로 인증(5년인증), '인증 가, 나(2년인증)' 또는 '인증 보류'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기능경기대회에 '도전장'

도내 17개 직업계고서 총 192명 접수... 4월 7~11일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전북기능경기대회 참가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17개 직업계고에서 총 192명이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75명에 비해 약 10% 증가한 규모다.

기능경기대회는 지역의 직업계고 학생들이 자신의 기능을 선보이고, 전국 기능경기대회와 국제 기능올림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대회다.

오는 4월 7~11일 전주공업고 등 10개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총 27개 직종에서 기술력을 겨루게 된다.

특히 올해는 전북유니텍고(자동차정비)와 한국전통문화고(요리, 제빵)가

새롭게 참가한다.

한국전통문화고는 지역 특색을 살려 요리와 제빵 직종을 신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기술 역량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동안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았던 12개 직종에도 추가로 참여하면서 대회 규모가 확대됐다.

신규로 참여하는 직종은 △모바일로보틱스 △폴리메카닉스 △산업용로봇 등 첨단 기술과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12개다.

이에 전주공업고는 모바일로보틱스와 산업용드론제어 직종에, 전북기계공업고는 폴리메카닉스와 산업용로봇 직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장은성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